세계의 빛고을… 인권·평화·통일의 노래 울린다

2006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 15~17일 김대중컨벤션센터

노벨평화상 수상자(단체 포함)와 세계적인 평화·인권 운동가들이 대거 참여해 세계 평화 선언할 '2006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가 오는 15일~1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광주정상회의에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중 14명(개인 7명, 단체 7개)과 세계 저명 평화·인권 운동가 30여명, 국내 민주·인권 운동가 70여명, 시민·학생 등 700여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이번 회의는 평화·인권의 도시로서 광주를 세계 속에 명확히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광주정상회의가 정례화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정상회의는 김대중 전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옛 소련 대통령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이들 2명의 수상자를 비롯해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참석을 통보해온 수상자는 개인 8명과 단체 7곳 등이다.

개인수상자중 참석 예정자는 김대중 전대통령(2000년 수상)과 고르바초프(1990년), 모이러 코리건 마기르(1976년·영국), 호세 라모스 오르타(1996년·동티모르), 쉬린 에바디(2003년·이란), 리고베르타 멘추 툼(1992년·과테말라), 왕가리 마타이(2004년·케냐)등이다. 그러나 티베트의 정치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는 본인의 강력한 참석의지에도 불구 한국 정부의 비자 불허 방침으로 사실상 참석이 어려워 개인 참가자는 7명이 될 전망이다.

단체수상자는 역대 16개 단체 가운데 7개 단체가 참석의사를 통보해왔다. 국제사면위원회(1977년)와 국제평화사무국(1910년)·국제적십자위원회(1963년)·미국 퀘이커 봉사위원회(1947년)·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1981년)· 핵전방지국제의학자기구(1985년)·피그워시 컨퍼런스(1995년) 등이다.

수상자 등 700여명 참여…역대 최대규모
국제학술회의 등 세계 인권·평화방안 논의

이밖에 93년 수상자인 넬슨 만델라(남아공)와 코피아난(2001년·가나), 모하메드 엘 바라데이(2005년·이집트),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2002년), 레흐 바웬사 전 폴란드 대통령(1983년) 등 5명은 영상메세지나 서신을 보내올 예정이다.

또 개인자격으로 쉘 마르넷 분데빅 노르웨이 전총리와 말콤 길리스 미국 라이스대 전총장, 도이 다카고 日사민당 전 당수 등도 참여해 행사의 의미를 더할 전망이다.

광주정상회의 행사 첫날인 15일에는 환영리셉션 외에 특별한 행사가 없다. 본 행사는 16일과 17일에 집중돼 있다.

16일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이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는 순간 '광주'와 '5·18'은 또 한번 세계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서 빛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참배 후 참가자들은 묘지를 둘러싸고 있는 민주평화동산에서 기념식수를 할 예정이다. 이어 오전 11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회식이 거행되며,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6시40분까지 3개의 세션으로 나눠 국제학술회의가 진행된다.

국제학술회의의 제1세션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과 한국의 민주화', 제2세션은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확산과 인권신장', 제3세션은 '동아시아의 평화 확산을 위한 국제적 협력' 등이다.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제4세션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을 주제로 학술회의가 이어진 뒤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전국 대학·대학원생 및 국외 유학생 200여명이 '세계평화와 대학생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 이어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의 '광주선언' 발표 및 공동 기자회견을 끝으로 광주정상회의는 막을 내린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 정상회의 주요일정

일자	내 용
15일 (목)	광주도착
16일 (금)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 - 수상자 개인별 기념식수(민주평화동산)
	노벨평화상수상자 방명록 서명 및 핸드 프린팅 - 기념조형물 설치용
	광주정상회의 개회식
	국제학술회의 : 수상자 특별연설, 전문가 토론 - 제1세션 : 5·18민주화운동 정신과 한국의 민주화 - 제2세션 :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확산과 인권신장 - 제3세션 : 동아시아의 평화 확산을 위한 국제적 협력
17일 (토)	국제학술회의 - 제4세션 : 6·15 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전국대학생 대표간 토론회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의 '광주선언' 발표 및 공동 기자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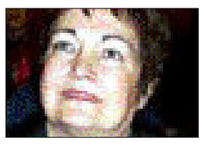
■개인 참가자·단체

김대중 전 대통령

국제사면위원회

고르바초프 옛소련대통령

국제평화사무국


모이러 코리건 마기르

국제적십자위원회

호세 라모스 오르타

미 퀘이커봉사위원회

쉬린 에바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리고베르타 멘추 툼

핵전방지국제의학자기구

왕가리 마타이

PUGWASH

퍼그워시회의

'6·15 공동선언 6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 14~17일 광주

지난 2002년 8·15 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한 북한 예술단이 서울 워커힐호텔 가야금홀에서 민속무용 '물동이 춤'을 공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4~17일 광주에서 열리는 '6·15 공동선언발표 6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은 남과 북이 지난 2000년 발표한 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보다 나은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화합의 장(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북한이 남북철도 시험운행 취소를 갑자기 통보하는 등 남과 북 사이에는 아직도 넘지 못하는 경계선이 자리 잡고 있어, 이번 축전이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축전은 북측 대표단이 14일 오전 11시 고려항공을 이용해 광주공항에 도착하면서 시작된다. 북측 대표단은 무등파크호텔에서 오찬을 한 뒤,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 백낙청)는 광주에서 열리는 축전의 의의를 부각시키기 위해 북한에 5·18 묘지의 참배를 꾸준히 요구했으며, 북한도 거부반응 없이 이를 수용했다.

이어 오후 7시에는 월드컵경기장에서 3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막식과 남북합동예술공연이 열린다. 개막사는 백낙청 상임대표가 할 예정이며, 6·15 공동선언을 이끌어 낸 김대중 전 대통령이 특별연설을 할 계획이다. 예술공연은 북한에서도 A급으로 알려진 공연단이 북한 전통 음악과 무용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항공스포츠학회'의 경비행기가 평양~광주를 비행하며 벌일 예정이었던 개막축하비행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6일 군사상 보안 등의 이유로 거부한 것이다.

■6·15민족대축전 주요행사

날짜	행 사
14일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 개막행사
15일	민족통일대회, 공동위원장 회의, 축하공연
16일	참관행사, 체육오락경기, 폐막식, 예술공연, 환송연회
17일	부문별 상봉행사, 대표단 환송

5·18 묘지 참배·문화예술공연
남북관계개선 화합의 장 마련

다음날(15일) 오전 10시에는 북구 운암동 문화예술회관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민족통일대회'가 개최되고, 남과 북 해외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공동호소문을 낭독한다. 호소문의 내용은 공동선언의 정신을 남과 북이 함께 계승하자는 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날 오전 11시30분에는 시립민속박물관에서 '남북합동미술전시회 합동관람'이 열리고, 오후 2시30분에는 남과 북 대표단이 여성·노동·종교 등 7개 단체로 나뉘어 개별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부문상봉행사'가 치러진다.

축전은 16일 오전 10시 염주체육관에서 열리는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후 북측 대표단은 전남도청을 찾아 도민들에게도 공연을 선사한 뒤, 다음날 오후 4시 광주공항을 통해 평양으로 돌아간다.

한편 축전 기간을 전후해 광주에서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개최된다. 오는 12~18일에는 금남로에서 '평양사람들의 서울나들이 전시회'가, 12일 오후 전남대학교 국제회의동 용봉홀에서는 6·15공동선언 6주년을 기념하고 남북관계를 진단하는 학술대회가 각각 열린다.

또 15일 오후 3시부터는 금남로 일대에서 5·18 정신을 기념하는 '주먹밥 나눔행사'가 예정돼 있고, 17일 정오에는 옛 전남도청 앞 민주의 종 공원 일대에서 '남북어린이 하나 되기 아름다운 장터'행사가 열린다.

광주시는 축전 기간 동안 남과 북, 해외 대표단 400여명을 비롯해 각지에서 10만여명의 방문객이 몰려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숙박시설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축전 기간 동안 교통이 정체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도 만일의 불상사를 막기 위해 북측 대표단이 머물 무등파크호텔을 철통처럼 경호한다는 방침이다.

백낙청 상임대표는 지난 2일 열린 '6·15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위원회 결성식'에서 "광주는 이번 축전을 통일로 승화시켜야하는 역사적 책무를 떠맡았다"면서 "시민들은 북에서 오는 '손님'들을 열렬히 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